

노동규의 생애와 학문

홍성찬*

요약

한국 근현대 경제학사를 계통적으로 정리하려면 초창기 경제학자 개개인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 글은 그런 목표아래 일제하 연희전문학교 상과 교수였던 경제학자 노동규(盧東奎, 1904-)의 생애와 학문을 정리하여 추후의 연구에 기초 자료로서 제공하려는 것이다.

주제분류 : B030106

핵심 주제어 : 노동규, 이순탁, 백남운, 연희전문학교 상과, 경제연구회사건

I. 서론

한국에 근대 경제학이 도입된 지도 한 세기가 넘었다. 이제는 근현대 경제학사를 계통적으로 정리할 단계가 되었다. 이에 그간 학계는 초창기 학자들의 논저와 관련 자료들을 치밀하게 수집, 검토하고(이기준 1983, 1984; 조기준 1986; 윤기중 1997, 2012; 방기중 1992, 1996; 이수일 1996, 1997; 홍성찬 1996, 2005, 2011; 성낙선·이상호 1999; 김균·이현창 2005; 홍종욱 2007; 이상호 2009; 오진석 2014; 성태운 2015), 그들의 논저와 회고담 등을 전집이나 단행본으로서 묶어내는 작업을 병행하여 왔다(이수일 편 1993; 하일식 편 1994; 강정택·이문웅 2008; 최호진 1991, 2001).

이 글은 그런 연장선 위에서 일제하 한국의 대표적인 신진 경제학자였던 연희전문학교 상과 노동규(盧東奎, 1904-) 교수의 생애와 학문을 검토하려는 것이다. 노동규는 1938년 연희전문학교 상과에서 일어난 '경제연구회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mail: schong@yonsei.ac.kr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세 분 교수 가운데 한 분인데 함께 구속되었던 이순탁, 백남운 교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인물이다(홍성찬, 2005). 이 글은 그의 경제학자로서의 수학과정과 학술활동을 정리하여 추후의 연구에 기초 자료로서 제공하려는 것이다. 한국 근현대 사상사, 학술사, 대학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면 이런 종류의 기초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글의 일차적 의미를 찾고 싶다.

II. 수 학

노동규는 1904년 8월 23일 평남 용강군 용강면 의산리 424번지에서 노경섭(盧經燮)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출생 직후 모친이 사망하여 다소 과묵하고 진지한 성격으로 성장한 그는 일제의 한국강점과 3.1운동의 격랑 속에서 “어릴 때는 조부에게 엄격한 유교식 훈육을 받고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 시대에는 황국신민의 기초교육을 받았으며 고등보통학교 시절에는 만세소요를 겪으며 데모크라시와 민족사상에도 흥미”를 느끼는 등 청소년기를 다양한 ‘사상편력’을 경험하며 보냈다(悔悟錄, 1938.11.19; 感想錄, 1939.7.28).

1921년에 평양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그는 곧바로 연희전문학교(이하 연전) 상과에 입학하였다. 당시 연전 상과에는 미국 브라운대학 출신의 백상규 교수가 상과 과장을 겸하며 경제학을 가르쳤는데 그는 1923년 10월 보성전문학교로 옮길 때까지 제본스, 멩거, 뵘바베르크 등 한계효용학과의 학설에 기초하여 경제학 강의를 하였다. 당연히 노동가치설이나 사회주의 경제학 등에는 비판적이었다(백상규 연도미상). 노동규가 3학년이 되던 1923년 4월에는, 교토(京都)제국대학 경제학부에서 당대 일본 최고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였던 가와카미 하지메(河上肇, 1879-1946) 교수에게 큰 영향을 받고 돌아와 ‘조선의 가와카미(河上) 박사’라는 별명까지 얻은 이순탁이 연전 상과 교수로 부임하였다. 그리하여 노동규는 그보다 일곱 살 위의 이순탁에게 보험론, 창고론 두 과목을 배웠고, 1925년 4월에 부임한 열 살 위의 동경상과대학(지금의 히토즈바시—橋대학) 출신 백남운 교수와는 그해 여름방학에 귀국하여 처음 만났다(피고인신문조서, 1940.6.14).

1924년 3월에 연전 상과를 졸업한 노동규는 그해 4월 이순탁의 추천으

로 교토제국대학 경제학부 선과에 입학하였다. 이듬해 6월 본과에 편입하였고 1927년 3월 졸업 때까지 전공 16과목, 부전공 5과목(헌법, 행정법, 민법제1부, 민법제2부, 사회학), 영어 2과목(외국경제서, 제1외국어, 영어) 등 23과목을 이수하였다([표 1]).

【표 1】 노동규의 교토제대 전공 이수 과목

연도	과목 이름(담당 교수)
1924	경제원론(타지마 긴지 田島錦治), 경제사(혼조 에이지로 本庄榮治郎), 식민정책(야마모토 미오노 山本美越乃), 통계학(타카라베 세이지 財部靜治)
1925	농업경제(가와타 쓰구오 河田嗣郎), 공업경제(山本美越乃), 상업경제(타니구치 요시히코 谷口吉彦), 국제경제론(사쿠다 소우이치 作田莊一), 사회정책(田島錦治), 재정학(감베 마사오 神戸正雄), 경제지리(고구쇼 이와오 黒正巖, 농학부)
1926	경제학사(田島錦治), 금융론(神戸正雄 혹은 시오미 사부로우 汐見三郎), 교통론(고지마 쇼우타로우 小島昌太郎), 보험론(小島昌太郎), 경제연습(汐見三郎)

자료: 이수과목은 京都大學 『學籍簿』, ()안의 담당교수는 京都帝國大學(1943)의 교수명단을 참고하여 추정한 것임.

노동규가 교토제대에 유학한 1920년대 중반의 일본 경제학계는 혼돈과 모색의 시기였다. 영국 고전학파의 정통학설과 슈몰러, 브렌타노 등 독일 신역사학파의 학설에 더하여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과 한계효용학파(marginal school) 경제학이 크게 부상하며 학파 간의 경쟁과 갈등이 격화하였다. 이에 교토제대 경제학부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가와카미 하지메 교수와 한계효용학파 입장의 자유주의 경제학자 타지마 긴지(田島錦治, 1867-1934) 교수에게 1학년 경제원론과 3학년 경제학사 과목을 격년으로 교대 강의시켰는데 학생들의 인기는 가와카미 교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京都帝國大學, 1943; 홍성찬, 1996).

노동규는 마침 그가 수강할 당시에 위의 두 강좌 모두 타지마 교수가 강의하여 둘 다 그에게 배웠지만(공관조서, 1940.12.12) 타지마 교수의 자유주의 경제학만을 수용하지는 않았다. 연전시절부터 접한 기독교와 톨스토이의 영향 하에서 기독교 인도주의와 기독교 사회주의에 관심을 가져 1926년경에 구세군의 세례까지 받았고 가와카미 교수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내가 사상방면에 흥미를 가진 것은 연전 재학 때부터다. 그러나 당시는 기독교에 감화 받아 이에 몰입하지 않았다. 교토대 재학 중 톨스토이의 종교론, 인생론을 읽고 기독교 인도주의, 기독교 사회주

의에 공명하여.....구세군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서도 나는 상당히 공상적이었다. 당시는 가와카미 박사의 저서가 굉장히 발행될 때라서 그중 『유물사관연구』와 월간의 『사회문제연구』 등을 탐독하면서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를 잘 분석, 비판하려면 마르크스의 유물적 역사관이 아니면 안 된다고 믿었다. 당시 학생들 사이에 사회과학연구가 성행하고 신진 경제학자들 대부분이 좌익이론에 빠진 것도 나를 사상적으로 더욱 자극하였다.”(피고인신문조서 1940.6.14). 노동규는 교토제대에서 가와카미 교수의 강의를 청강하고 그의 책도 읽었지만 교토제대의 대표적 좌익 학생단체였던 사회과학연구회에 가입하지 않았고 실천운동은 더더욱 하지 않았다. 식민지 출신의 지식청년으로서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공명도 하고 그 이론이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으로서 가장 과학적이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게 다였다.

Ⅲ. 연전 상과 교수 시절

1927년 3월에 교토제대 경제학부를 졸업한 노동규는 1년간 전주사립신흥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1928년 3월 연전 상과 강사가 되었다. 스물세 살 때였다. 곧이어 전임강사(1930), 조교수(1931), 교수(1932)가 되었다. 그리하여 1938년 3월 연전 상과에서 일어난 회대의 공안 사건이자 한국 근현대 학술사에서 가장 큰 학원탄압, 사상탄압, 교수탄압 사건이었던 ‘경제연구회사건’으로 이순탁, 백남운 교수 등과 함께 서대문 경찰서에 연행 구금될 때까지 상과에서 상업지리, 교통론, 상업영어, 재정학, 상업정책, 농업경제, 은행론, 화폐론, 창고론(1937.4-1938.3) 등을 가르쳤다. 수강생은 필수과목의 경우 50-80명, 선택과목은 20명 정도였는데 과목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입장의 교과서와 참고서를 균형 있게 택하여 강의하였다. 아래는 그가 수업시간에 소개한 과목별 교과서와 참고서들이다(피고인신문조서 1940.6.14: 상과 졸업생 조은상, 박선옥, 최병준, 이희수, 김종하 신문조서).

농업경제는 1929년(1932년?) 4월부터 1938년 3월까지 가르쳤는데 『농업경제론』(近藤康男, 1932)을 비롯하여 『소농경제의 원리』(A. Chaianov, 磯辺秀俊 등 역, 1927), 『농업정책』(那須皓, 1931), 『농업경제학』(K.

Kautsky, 向坂逸郎 역, 1932), 『마르크스주의농업문제총론』(M. E. Levenshtam, 荒川實藏 역, 1932) 등을 참고하였다(저자 및 역자, 연도. 연도는 초판 또는 개정판 간행연도. 이하 같음). 상업지리는 1929년 4월부터 1932년 3월까지 강의하였는데 『상업지리학개론』(野口保市郎, 1926), 『세계교통지리개론』(富士徳治郎, 1926), 『세계경제지리강화』(西田卯八, 1926), 『산업경제지리강화』(大鹽龜雄, 1928), 『인문지리학개론』(E. Huntington, 伏見義夫 역, 1926), 『세계산업대관』(牧野輝智, 1929), 『경제지리개론』(The Plebs league 編, 菊川忠雄 역, 1930), 『경제지리』(佐藤弘, 1931), 『경제지리세계 : 물산편』(寺田貞次, 1931), 『세계경제지리(地誌)』(香川幹一, 1932) 등을 참고하였다. 재정학은 1929년 4월부터 1932년 3월까지 가르쳤는데 『재정학대강大綱』(大内兵衛, 1930)을 참고하였다.

상업정책은 1930년 4월부터 1938년 3월까지 가르쳤다. 『상업정책강요』(河津暹, 1924), 『국제경제정책』(W. S. Culbertson, 生島廣治郎 역, 1928), 『내외상업정책』(小林行昌, 1929), 『상업정책』(上田貞次郎, 1930), 『국제상업원리』(F. W. Taussig, 宮川貞一郎, 1930), 『상업정책』(田中貢, 1932), 『세계공황하의 국제무역정책』(平野常治, 1933), 『무역통제론: 현대무역정책의 이론과 실제』(竹内謙二, 1933), 『무역정책원론』(景山哲夫, 1934), 『오린의 무역이론』(谷口重吉, 1936) 등을 참고하였다. 상업정책 시간에 오린(B. G. Ohlin)과 타우썸(F. W. Taussig)의 국제무역이론을 강의하였다.

은행론은 대공황의 와중인 1932년 4월부터 1938년 3월까지 강의하였다. 『은행론』(青木得三, 1926), 『금융론』(牧野輝智, 1930), 『마르크스주의노동자 교정』(H. Duncker 외 편, 프롤레타리아과학연구소, 1931), 『영미독불 최근의 은행사정』(K. Mackenzie, 伊地知軍司 역, 1932), 『금의 경제학』(猪俣津南雄, 1932), 『금융시장의 세계적 동요』(경제비판회 역편, 1933), 『현대의 신용과 신용조직』(A. Trachtenberg, 川崎巳三郎 역, 1934) 등을 참고하였다. 화폐론도 1932년 4월부터 1938년 3월까지 강의하였다. 참고서는 『화폐제도』(高垣寅次郎, 荒木光太郎 공저, 1929), 『화폐론』(橋爪明男, 1930), 『화폐론』(K. Knies, 山口正吾 역, 1930), 『금의 경제학』(猪俣津南雄, 1932), 『화폐, 신용 및 인플레이션의 이론』(猪俣津南

雄, 1933), 『화폐와 신용』(코아카데미경제학연구소, G. A. Kozlov 편, 米村正一 역, 1933), 『자본주의 화폐제도론』(M. 율슨, 모스크바세계경제계정연구소 감수, 永住道雄 역, 1936), 『생산 가치 화폐 : 자본의 생산과정』(I. A. Lapidus, K. Ostrovitiānov 공저, 橋本弘毅 역, 1937) 등이었다.

일제하 연전 상과에는 미국 유학과와 일본 유학과, 이론과목과 실무기술과목, 자본주의 학문관과 마르크스주의 학문관이 공존하며 서로 경쟁 각축하였다. 그러면서도 상과 교수들은 공통적으로 반일, 반제, 반관학의 민족주의 학풍에 학문의 기반을 두고 있었다(홍성찬, 2005). 이들은 일제의 식민지 시혜론, 식민지 미화론에 비판적이었고 일제의 강점정책, 일본과 일본인 위주의 식민지 경제정책과 그 연장선 위에서 일제가 실시한 대지주, 대기업, 대재벌 중심의 정책에도 극히 비판적이었다. 이들은 일제의 한국강점을 정당화해온 조선사회정체론, 타율성론 같은 식민주의 역사관에도 반대하였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조선인식을 앞장서서 보급해온 경성제대 교수 등의 일본인 관학자들과 학문적으로 대결해간다는 뚜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연전 상과 교수들은 1933년 6월에 반일, 반제, 반관학 입장의 조선인 경제학자들을 결집하여 장차 일제의 관학적 조선경제연구에 학문적으로 대결해갈 ‘조선학술부대의 참모본영’으로서 조선경제학회를 창립하는데 앞장섰다. 그 학회 대표간사였던 백남운이 후일 “(나는) 조선경제학회 간사장을 지냈는데 그 학회는 1933년 6월에 나와 노동규가 발기하여 경제과학의 연구를 목표로 조직”하였으며 그 후 “임의 해산하였다”고 말한 대로(홍성찬, 2005) 연전 상과의 백남운, 노동규 교수가 각각 대표간사, 서무간사로서 사실상 창립을 주도하였고 그 외 연전에서 가르쳤던 조병옥, 김도연 교수는 창립간사로서 창립을 도왔다. 연전 부교장 유억겸과 김도연은 재정위원회와 사업위원회 상무를 각각 맡아 운영을 도왔으며 상과의 임병혁, 정광현 교수는 일반회원으로 참여하였다. 모두 6회 열린 통상보고회도 그중 4회를 이순탁, 최순주, 노동규, 백남운 등 연전 상과 교수들이 맡았다(방기중, 1992).

이들은 일제의 한국강점을 합리화해온 ‘조선사회정체론’과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에도 비판적이었다. 우선 백남운은 1933년에 『조선사회경제사』를 간행하여 우리 역사가 원시 씨족공산제 - 고대 노예국가 - 아세아적 봉건국

가 - 아세아적 봉건국가의 붕괴와 자본주의의 맹아단계를 거치며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법칙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발전하여 왔다고 천명하였다. 일제 침입 이전을 아시아적 봉건국가의 붕괴와 자본주의의 맹아(싹)가 나타난 이행기로서 이해한 것이다. 한편 백남운은 1934년에 보성전문학교 상과의 김광진 교수가 그 학교 논문집인 『보전학회논문집』에 실은 글에서 세계자본주의 침입이전의 조선사회를 ‘순(純)아세아적’ 생산양식의 사회로 규정하고 그 사회가 세계자본주의의 침입으로 ‘돌연히 참으로 돌연히’ 붕괴되었다는 전형적인 정체론, 타율론을 주장하자 이를 반박하여 “상업자본도 발생되지 못한 구사회가 ‘이양선(異樣船)’의 침입으로 돌연히 붕괴되었다는 견해는 지나(支那)에 침입한 구라파의 자본주의가 그 ‘아세아적 생산양식’과 봉착하였다는 견해와 유형적(으로 같은) 견해이므로 도저히 찬동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방기중, 1992).

노동규도 같은 생각이었다. 1934년에 관학의 총본산이던 경성제대 법문학부의 교수들이 『조선사회경제사』라는 연구논문집을 간행하자 그중 조선 말기를 ‘자급자족의 ‘후진국’, ‘농업국’으로 묘사하며 일본 관학자들의 전형적인 조선사회정체론을 주장한 시카다 히로시(四方博) 교수를 향하여 “문제는 조선의 자본주의 성립과정에 대한 교수의 근본적 견해에 있다..... 조선자본주의 성립과정의 연구는 해체과정에 있던 한국말엽의 봉건경제의 본질을 구명함으로써 정당한 출발점을 파악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고(不顧)하고 교수는 이 점에 대한 아무런 논구가 없이 단순히 ‘자급자족의 경제사회’, ‘후진국’, ‘농업국’ 운운의 사회발전사적으로 보면 심히 불분명한 용어로 표시함에 지(至)하여는 길게 비판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일축하였다(아래의 노동규 논저 16).

이런 학풍 속에서 연전 상과 교수들은 조선의 경제현실과 식민지 경제정책의 민족적 계급적 본질을 폭로하는 비판적인 글들을 많이 발표하였다. 노동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연전 졸업 직후인 1924년 봄에 연전 기관지 『연회』에 두 편의 논문을 실은 이래 1938년 봄 경제연구회사건으로 경찰에 연행될 때까지 아래 목록에서 보듯이 모두 30편의 글을 발표하였다.

노동규 논저 목록

1. 「現在 朝鮮産業 狀態에 如何한 關稅政策이 可할가」, 『延禧』, 3, 연희전문 학교, 1924.5.
2. 「國富에 대하여」, 『延禧』, 3, 1924.5.
3. 「農村振興策如何(전13회)」, 『동아일보』, 1927.1.1-1.22.
4. 「歷史學派와 心理學派」, 『學潮』, 2-1, 1927.7.
5. 「1920年代와 1930年代 財政一瞥 五倍增加 朝鮮稅政變遷(전2회)」, 『동아일보』, 1930.4.3 -4.4.
6. 「産業合理化序說」, 『延禧』, 7, 1931.1.
7. 「農村은 어대로 : 農村救急의 最小限度 要求는 무엇? 農村運動의 最緊急 事는 무엇? - 紙上論보다 實際 調査로(노동규)」, 『東光』, 1931.4.
8. 「小農經濟의 原理 -Tschajanow 學說의 紹介」, 『延禧』, 8, 1931.12.
9. 「朝鮮農家經濟實相調查解剖」, 『東方評論』, 1-3, 1932.7.
10. 「爲替低와 物價高로 米價도 騰貴할 듯. 그러나 中間景氣에 不過」, 『조선 일보』, 1933.1.5.
11. 「世界經濟會議 그 難關과 成果如何」, 『동아일보』, 1933.7.2.
12. 「朝鮮農業의 現狀 及 將來」, 『新東亞』, 3-9, 1933.9.
13. 「朝鮮쌀은 어대로」, 『新東亞』, 1933.12.
14. 「朝鮮産業의 祖宗, 農業의 現在와 將來(上,下) - 朝鮮産業의 再認識. 現狀概觀과 將來展望」, 『동아일보』, 1934.1.1-1.2.
15. 「外地米 買上案은 米統法 矛盾의 延長. 생산소비통제는 紙上論」, 『동아일보』, 1934.2.14.
16. 「城大法文學會發刊 『朝鮮社會經濟史』, 研究論集을 讀함(전4회)」, 『동아일보』, 1934.3.7- 3.10.
17. 「統制經濟의 基本概念」, 『新東亞』, 4-4, 1934.4.
18. 「인플레이션의 本質 及 批判(上,下) -經濟講座 第2回」, 『新東亞』, 4-5, 6, 1934.5.6.
19. 「亞細亞的 生産樣式에 대하여」, 『新東亞』, 4-7, 1934.7.
20. 「朝鮮經濟와 統制問題(전5회)」, 『동아일보』, 1935.1.1-1.5.
21. 「朝鮮의 人口及食糧問題(上,中,下)」, 『新東亞』, 5-1,2,3, 1935.1.2,3.
22. 「米穀問題와 自治管理法案」, 『新東亞』, 5-4, 1935.4.
23. 「朝鮮商工業化問題」, 『新東亞』, 5-6, 1935.6.
24. 「李勳求教授의 新著 『朝鮮農業論』을 讀함(上,中,下)」, 『동아일보』, 1935.9.3-9.5.
25. 「天災의 社會性」, 『동아일보』, 1935.9.26.
26. 「經濟朝鮮의 回顧一年」, 『新東亞』, 5-12, 1935.12.

27. 「朝鮮農村經濟實相調查解剖」, 『學海』, 1936.1.
28. 「農産物 價格騰貴와 農村購買力(전6회)」, 『동아일보』, 1936.1.1-1.9.
29. 「災害朝鮮의 救濟策, 自然及社會的 條件을 緩和」, 『동아일보』, 1936.1.6.
30. 「農業偏重에서 工, 鑛業獎勵로(下)」, 『조선중앙일보』, 1936.1.3.

그의 글은 아래의 몇 가지 계통으로 나뉜다. 첫째는 이론적인 글이다. 국부와 국민소득 등 한 나라의 경제력 측정에 필요한 개념과 방법을 차분하게 소개한 글(2. 노동규 논저 목록의 번호임. 이하 같음), 역사학과와 심리학파를 요령 있게 해설한 글(4)이 여기에 해당한다. 소농경제에 관한 당대 최고 학자 차야노프(Alexander W. Tschajanow)의 주장을 자세하게 소개한 글(8)과 아세아적 생산양식에 관한 오랜 학설사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소련학계의 최신 성과와 논쟁까지 국내에 처음으로 자세하게 소개한 글도 같은 예다(19). 둘째는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들을 다룬 글이다. 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미국과 유럽 각국의 경쟁적인 환율인하와 관세인상, 인플레이션 정책 등을 설명하고 금본위제를 고수 또는 이탈한 국가들 사이의 갈등 등으로 걸릴 위기에 빠진 런던세계경제회의의 현재와 장래를 전망한 글(11), 대공황을 거치며 세계적으로 확산된 ‘산업합리화’의 세계사적 의미와 실태를 설명한 글(6), 1930년대에 자본주의의 위기를 맞아 각국에서 실시한 ‘통제경제’ 정책의 실태와 의미를 추적하고 그 성과를 비판적으로 전망한 글(17)이 그 예다.

셋째는 조선경제의 주요 이슈들을 다룬 글이다. 1920년 8월에 실시한 일본과 조선의 관세통합을 강하게 비판한 글(1), 일제의 세정(稅政) 변천을 개관한 글(5), 1930년대 중반의 상공업화, 광공업 장려 정책의 내용과 한계를 검토한 글(23, 30), 일제가 조선에서 실시한 통제경제 정책의 본질과 내용을 비판적으로 살펴본 글(20)이 그 예다. 대공황을 전후하여 미가가 폭락, 상승한 가운데 일제가 일본 미곡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들고 나온 미곡통제법과 미곡자치관리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꼼꼼하게 지적한 글(10, 13, 15, 22)과 조선경제의 1년을 회고하고(26), 경성제대 법문학부에서 나온 논문집 『조선사회경제사』(1934)의 서평을 한 것(16)도 여기에 해당한다.

넷째는 그의 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점한 조선농업경제에 관한 글들이

다. 그는 교토제대에서 그 당시에 이미 『토지경제론』(1902), 『곡가의 연구』(1917), 『농업창고론』(1918), 『식량과 사회』(1921), 『농업노동과 소작제』(1922), 『농업사회주의와 조합사회주의』(1923), 『농촌연구』(1925), 『농정43강(講)』(1925), 『농업경제학』(1925) 등의 방대한 저술을 내놓은 일본 농업경제학의 거두 가와타 쓰구오(河田嗣郎) 교수에게 농업경제학을 배웠다. 졸업직전인 1927년 1월에는 동아일보 현상논문공모에서 ‘농촌진흥책 여하’라는 글로써 당선하였고(3), 연전 상과에 부임해서도 농업경제를 줄곧 가르쳤다. 그리하여 이훈구 교수의 저서 『조선농업론』이 나왔을 때는 신문에 그 서평을 쓰기도 하였다(24).

이런 노동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농업이 가지는 일반적 특징과 조선농업만이 가지는 특수성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리하여 조선농업의 가장 큰 특징을 경제 전체의 빠른 자본주의화, 상품생산화에도 불구하고 농업자본주의의 발전(大農化)이 부진하여 소농 특히 “자본가적 타산을 모르는 소규모 소작농”이 압도적 다수를 이룬 점이라고 생각하였다(3, 9). 한편 그는 농업의 자본주의화가 부진한 이유를 농업의 자연적 환경적 특성보다 도시의 상공업 발달이 부진하여 농촌의 과잉인구를 흡수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보았다. 농촌에 과잉인구가 쌓여 차지경쟁이 격화하고 고을소작료가 만연하였으며 그런 이유로 지주는 고을소작료에 안주한 채 농업투자를 하지 않고 소작농은 생산, 유통, 신용 등 모든 면에서 불리한데다 고을소작료까지 납부하여 파탄에 이른 것이 조선의 농업현실이라고 보았다. 조선농업이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유독 취약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여겼다(25, 29).

그렇다면 소농이 만연한 조선농촌을 어떻게 진흥하고 소작농가의 수입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그는 식민지하에서 상공업의 발달이 부진하고 또 토지의 사적소유가 존속하는 한 둘 다 쉽지 않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차선책으로서 소작권 확립, 소작료 저감과 집합계약, 공동경작¹⁾ 같은 방안과 산업조합 설치, 자작농 유지 및 창정 같은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당시로서는 전자의 집합계약, 공동경작조차 실시하기 어려울 것이며 실시한다고 해도 소작인의 단체정신과 조직적 훈련이 없는 한 성공하기 힘들 것이

1) 집합계약은 소작인조합을 만들어 조합이 지주와 계약하여 소작지를 공동 임차한 후 조합원에게 분배 경작시키는 방법이다. 공동경작은 집합계약으로 빌린 소작지를 소작인에게 분배 경작시키지 않고 조합에서 공동경작하는 것이다.

라고 전망하였다(3). 민족의 독립과 농업의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조선농업의 장래가 밝아지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조선 농업문제에 관한 노동규의 글 가운데 이채를 띤 것은 조선 농가경제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일이다(7). 조선총독부의 농업통계를 믿기 어렵고 조사항목(coverage)도 부실하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1932년 여름 연전 학생 등의 도움을 받아 전국 33곳 1,256호 농가의 식구, 소유지, 경작지, 재산, 경작수입, 부업수입, 가축, 기타 사항을 조사하는 ‘농가조사’를 실시하고 그와 병행하여 전국에서 10호의 농가를 뽑아 국내 최초로 그들의 수입, 지출, 부채 등을 꼼꼼하게 조사하는 ‘농가경제조사’를 실시하여 그중 일부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였다(9, 27).

노동규는 반일, 반제, 반관학의 입장에서 전국 순회강연에도 적극 나섰다. 대공황으로 각국의 관세인하 전쟁이 치열하던 1931년 3월에는 평양에서 관세문제를 강연하였고(『조선일보』, 1931.3.14), 1932년 8월과 1933년 2월에는 대구와 서울에서 산업합리화 문제를 강연하였다. 1933년 3월에는 서울과 개성에서 세계공황을 주제로, 8월에는 인천에서 조선농촌경제 문제에 대하여 강연하였다(『동아일보』, 1933.3.17). 1933년 10월에 정인보, 백남운, 유진오 등과 함께 동아일보의 객원이 된 그는 11월에 서울, 청주에서 ‘조선 쌀은 어디로?’라는 강연을 하였고, 1934년 4월에는 잡지 신동아의 경제강좌 코너를 맡기도 하였다(『동아일보』, 1933.10.17, 11.12; 『신동아』, 1934.4. 7). 1935년 6월에는 신동아 주최로 조선농촌문제를 강연하였고(『동아일보』, 1935.6.1), 7월에는 동아일보가 6개 사립전문학교 교수들로 순회강연 팀을 만들자 경제학자 김광진, 이순탁, 박극채, 이훈구, 이여성, 윤행중 등과 함께 참여하였으며(『동아일보』, 1935.7.4), 10월에는 경성 제2방송국에서 ‘경제의 각종상(相)’을 방송하기도 하였다. 1936년 8월에는 원산에서 시사강연을 하였다(『동아일보』, 1936.8.17).

1936년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학계와 사상계는 엄청나게 위축되었다. 일본에서 일어난 2.26군부쿠데타에 이어 8월에는 미나미 지로(南次郎) 조선총독이 부임하여 내선일체의 황민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1936년 말에는 조선경제학회가 ‘임의해산’하였고, 1937년 초에는 상과의 경제연구회도 활동을 중단하였다.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일어나 전시체제가 더욱 강화된 가운데 일제는 그해 12월과 1938년 2월에 일본에서 이른

바 1차, 2차 인민전선사건을 일으켜 군부에 반대하는 학자들을 대학에서 대거 추방하는 사상탄압, 학원탄압, '숙학'(肅學)을 단행하였다. 그 연장선 위에서 1938년 2월에는 연전 상과에서 '경제연구회사건'이라는 희대의 공안사건을 일으켜 학생들을 하나둘 검거하기 시작하였고 3월말, 4월초에는 백남운, 이순탁 등 상과 교수들까지 연행하였다. 노동규는 신학기 개강을 바로 앞둔 1938년 3월 30일 오후 1시 서대문경찰서로 연행되어 이내 구금되었다. 그의 나이 34세 때였다. 5월 16일 경찰은 경성부 신촌정 107번지 그의 가택을 수색하여 농업경제, 은행론, 상업정책, 화폐론, 상업지리 과목의 강의노트와 '산업합리화' 원고 및 서적 324종을 압수하였다(홍성찬, 2005). 이미 학교에 강제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그는 연행 후 8개월도 더 지난 1938년 12월이 되어서야 이순탁, 백남운 교수와 함께 검찰에 송치되어 예심에 회부되었다. 그리고 다시 2년이 더 지난 1940년 12월 12일에 치안유지법 위반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고 같은 달 21일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출감 후 노동규는 동향인 평남 용강 출신 대자본가 박홍식이 운영한 화신(주)에 심사과장의 적을 둔 채 이순탁, 백남운 교수와 함께 대화숙(제1기)에 드나드는 좌절의 시간을 보냈고 머지않아 사망하였다(申村資良 편, 1942; 한용연, 2003).

IV. 결 어

한국 근현대 경제학사를 계통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서 일제하 연전 상과 교수였던 경제학자 노동규의 수학과정과 학술활동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그의 글들을 좀 더 치밀하게 검토하는 일은 추후의 과제로 돌리고 싶다.

투고 일자: 2015. 4. 26. 심사 및 수정 일자: 2015. 5. 8. 게재 확정 일자: 2015. 5. 11.

◆ 참고문헌 ◆

- 강정택·이문웅 (2008), 『식민지 조선의 농촌사회와 농업경제』, YBM SISA.
- 김 균·이헌창 편 (2005), 『한국 경제학의 발달과 고려대학교』, 고려대출판부.
- 방기중 (1992),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 _____ (1996), “일제하 이훈구의 농업론과 경제자립사상,” 『역사문제연구』, 1, 역사문제연구소.
- 백상규 (연도미상), 『경제학강의』, 프린트판.
- 성낙선·이상호 (1999), “한국 최초의 이론경제학자 윤행중,” 『경제학의 역사와 사상』, 2, 경제학사학회.
- 성태윤 (2015), “1950년대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학풍,” 연세학풍사업단·김도형 외, 『해방 후 연세학풍의 전개와 신학문 개척』, 혜안.
- 오진석 (2014), “해방 전후 최호진의 학문세계와 학술활동,” 『한국경제학보』, 21-2,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 윤기중 (1997), “1920년대와 1930년대의 한국경제학계 동향,” 『연세경제연구』, 4-2,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 _____ (2012), “김준보, 한국농업경제학의 거목,” 『한국사시민강좌』, 50, 일조각.
- 이기준 (1983), 『교육 한국경제학발달사』, 일조각.
- _____ (1984), 『한말서구경제학도입사연구』, 일조각.
- 이상호 (2009), “윤행중의 ‘이론경제학’과 한국의 맑스주의,” 『한국인물사연구』, 11, 한국인물사연구소.
- 이수일 편 (1993), 『인정식전집』, 전5권, 한울출판사.
- _____ (1996), “일제하 박문규의 현실인식과 경제사상,” 『역사문제연구』, 1, 역사문제연구소.
- _____ (1997), “1920-30년대 한국의 경제학풍과 경제연구의 동향,” 『연세경제연구』, 4-2.
- 조기준 (1986), “한국 경제학의 시원에 관한 연구,” 『근대서구학문의 수용과 普專』, 고려대출판부.
- 최호진 (1991), 『나의학문 나의인생』, 매일경제신문사.
- _____ (2001), 『한국경제50년 논선』, 전3권, 세경사.
- 하일식 편 (1994), 『백남운전집』, 전4권, 이성과 현실사.
- 한용연 (2003), 『항상 새로운 삶을 위하여』, 주식회사아이스토리.
- 홍성찬 (1996), “한국근현대 李順鐸의 정치경제사상 연구,” 『역사문제연구』, 1.
- _____ (2005), “일제하 연전 상과의 경제학풍과 경제연구회사건,” 연세대학교 국

학연구원 편, 『근대학문의 형성과 연희전문』, 연세대학교출판부.

_____ (2011), “최호진의 경제사 연구와 저술의 사회사,” 『동방학지』, 154.

홍종욱 (2007), “해방을 전후한 경제통제론의 전개,” 『역사와 현실』, 64, 한국역사연구회.

京都大學, 『學籍簿』.

京都帝國大學 (1943), 『京都帝國大學史』, 京都帝國大學.

中村資良 편 (1942),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42년판.

The Life and Works of Dong-gyu No

Sung-chan Hong*

Abstract

A close investigation into the first generation of Korean economists is an essential step in constructing the modern Korean history of Economics. With this aim, this paper analyzes the life and works of Dong-gyu No, a professor of economics who taught in Chosen Christian College (now the Yonsei University)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KRF Classification : B030106

**Key Words : Dong-gyu No, Sun-tak Yi, Nam-un Baek,
the Commerce Department and the Economic Club
Incident of Chosen Christian College**

* Professor, School of Economics, Yonsei University, e-mail: schong@yonsei.ac.kr